**유엔 전문가, 대한민국 방문 동안 북측과의 인권 대화 강조 예정**

제네바/서울 (2018년 6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가 7월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 방문한다. 한반도 내 긴장 완화 국면에서 첫 방한이다.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살피는 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특히 현재의 비핵화 논의에 인권을 의제로 포함하도록 강조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현 화해 국면을 환영하는 한편,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권 대화를 하도록 수차례 요구해왔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을 의제에 포함하는 것은 대화를 진정성있고 지속가능하게 이어가는 방법이지, 대화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8일 동안 대한민국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외교계 인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한적십자사,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와도 만난다. 아울러 근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난 이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정기적으로 방한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한다. 특별보고관은 2016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됐고, 금번 방한은 지난 2017년 12월 방한에 이어 네 번째이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다.

특별보고관은 방한을 마무리하는 (현지 시각 기준)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언론 관계자만 참석이 가능하다.

특별보고관은자신이 파악한 내용 및 권고를 담아2018년 10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끝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Welcomepage.aspx)*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웹페이지:* [*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

*추가 정보 및 언론사 영어 문의는 Olga Nakajo (방한 일정 전후: +41 22 928 9348, 방한 일정 중: +41 79 444 3702 /* *onakajo@ohchr.org**), 한국어 문의는 송유미 (+82 2 725 3524 /* *ysong@ohchr.org**)로 문의주십시오.*

기타 유엔 위임권한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Jeremy Laurence  (+ 41 22 917 9383 / jlaurence@ohchr.org)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의 해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인 50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전세계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위대함과 영향력을 재차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퇴색되지 않도록 인권 옹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스탠드업**

**(STAND UP)” 목소리를 내주세요.**

<http://www.standup4humanrights.org>)